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0, Vol. 22, No. 2, 385-411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

조 화 진 서 영 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애착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애착이 분리-개별화와 성인애착을 매개로 대학생활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도와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신입생 347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자료 분석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변수 간 경로를 설정한 가설모형에 비해 부모애착에서 성인애착으로의 직접 경로를 포함하지 않은 경쟁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은 분리-개별화를 통해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분리-개별화에서 성인애착을 거쳐 대학생활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가는 간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리-개별화는 부모애착이 대학생활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 또는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인애착불안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성인애착회피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연구 및 상담실제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부모애착, 성인애착, 분리-개별화,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

† 교신저자 :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Tel : 02-2123-6171, E-mail :seox0004@yonsei.ac.kr

www.kci.go.kr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과 더불어 자기정체감 확립 등 중요한 발달과업에 직면하게 되는데, 성취해야 할 많은 과업들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실제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75.24%), 목표상실과 가치관 혼란(43.94%), 자율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30.2%) 등의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세상담연구, 2008). 다른 경험적 연구에서도 대학 신입생들은 상급생에 비해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수준이 낮고,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경, 2003; 김은영, 1993; Bryde & Milburn, 1990; Chemers, Hu, & Garcia, 2001; Loeb & Magee, 1992). 즉,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적응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인 문제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전을 위해서는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가 중요하고, 청년기 과업 성취를 위해서는 대학생활 적응과 정서적인 문제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요인들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특히, 주요 타인(예, 부모, 친구)과의 관계와 관련된 변인들이 주목을 받아왔는데, 애착과 분리-개별화 문제가 많은 이론가와 연구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Lapsley, Rice, & Shadid, 1989; Lopez & Gormley, 2002; Mayseless, Danieli, & Sharabany, 1996; Sullivan & Sullivan, 1980).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관계변수(부모애착, 성인애착, 분리-개별화)와 이들의 관계에 대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변수 간 인과적 관계모형을 설정한 후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애착이란 한 개인이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는데(Bowlby, 1988), 애착이론에서는 정서적 유대의 본질과 이러한 정서적 유대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다. 발달 초기 주요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강조하는 이론가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owlby, 1988)에 따르면, 유아는 주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한다. 내적작동모델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모델로 발전하는데, 자신과 타인의 반응을 예상하고 상황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초기 애착 이론가들은 애착의 지속성 및 연속성을 주장하였고, 이후 연구들 또한 초기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동성 또는 이성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Cassidy, 2001), 부모 또는 또래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 경험이 성인기의 적응을 예측하는 인지적, 정서적, 대인 관계적 지표임을 밝혀왔다(박범혁, 정영숙, 2007; 장휘숙, 2002; 조화진, 2005; 최은실, 2001; Larose & Boivin., 1998; Mattanah, Hancock, & Brand, 2004; Rice, Cunningham, & Young, 1997; Rice, Lopez, & Vergara, 2005). 한편, 애착이론에서는 부모와 이별 또는 분리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애착유형 및 패턴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우리나라 대학신입생들의 경우, 처음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거나, 비록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심리적

www.kci.go.kr

으로 독립하는 것은 당면한 발달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발달초기에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패턴과 내적작동모델이 강하게 발현되고, 결국 대학 신입생들의 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지닌 신입생들은 낯선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더욱 더 적응상의 문제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을 관계변수 중 하나로 채택하여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발달 초기 주요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강조하는 이론적 접근과는 달리, 최근에는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애착 대상이 부모뿐만 아니라 친구, 애인, 배우자, 자녀 등으로 다양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Baldwin, Keelan, Fehr, Enns, & Koh-Rangarajoo, 1996; Cook, 2000; Lewis, Feiring, & Rosenthal, 2000). 즉, 발달 초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이 그 이후 시기까지 지속되지 않고 대상에 따라 다른 애착유형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의 내적작동모델이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일례로, Cook(2000)은 두 명의 자녀를 둔 208개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애착의 안정성을 연구한 결과, 관계의 상호작용 유형과 관계의 질에 따라 한 개인의 애착패턴이 대상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verbeek, Vollebergh, Engels, 그리고 Meeus(2003)는 후기 청소년기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대신 로맨틱 파트너가 지지와 친밀감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청년기의 애착 대상 및 애착유형은 이전 발달시기보다 더 다양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착 및 그 영향을 연구할 때 애착의 대상을 다양화해야 하고, 대상에 따른 애착패턴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에서도 부모 이외의 다른 대상에 대한 애착패턴(성인애착)이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정적인 성인애착 유형을 지닌 대학생들이 회피형이나 양가형에 비해 가장 높은 적응 수준을 보였고(양혜선, 2004), 애착의 세 가지 측면(의존, 불안, 친밀) 중 친밀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응, 사회적응, 대학환경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연주, 2008). 또한 안정된 성인애착 패턴을 보이는 대학생들의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은, 2004; 이경님, 2003; Wei, Heppner, Russell, & Young, 2006; Wei, Russell, & Zakalik,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을 동시에 설정하고 각각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두 가지 애착패턴이 어떤 인과적 관련성을 보이면서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적 주장과 경험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두 변수 간 인과적 관련성을 설정하였다. 즉, 발달 초기에 형성된 부모애착이 이후의 애착패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Bowlby, 1988; Cassidy, 2001; Rice, Cunningham, & Young, 1997)와 부모애착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성인애착의 형성을 강조하는 견해(Cook, 2000; Overbeek et al., 2003)를 모두 고려하여 모형 설정 시 이를 반영하였다.

한편,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

www.kci.go.kr

를 예측하는 관계변수로 분리-개별화가 학계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초기에 진행된 연구들은 분리-개별화를 분리과정에서 불안, 죄책감, 거절 기대와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대학생활 적응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정은희, 1992; 한혜준, 1994; Hoffman, 1984; Lapsley, et al., 1989; Levitz & Orlofsky, 1985). 특히, Hoffman (1984)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기능적, 정서적, 갈등적, 태도적 독립으로 구분하였고, 갈등적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 그리고 정서적 독립과 학업성취 간 정적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갈등적 독립(부모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불만, 불신, 분노, 책임감, 죄책감 등 갈등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것) 수준과 태도적 독립(부모의 신념이나 가치관과는 구별된 자신만의 태도를 갖는 것) 수준이 증가하고(한혜준, 1994), 갈등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부모로부터 지나치게 인정, 지지, 사랑받고자 하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태도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은희, 1992; 한혜준, 1994). 분리-개별화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또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분리불안이나 공생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의존적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박규상, 2008),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휘숙, 2002). 그리고 주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거리감을 균형있게 유지하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olmbeck & Wandrei, 1993). 즉, 이전 시기에 비해 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이 요구되는 대학 신입생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를 달성하느냐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건강 수준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를 관계변수로 채택하여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변수로 부모애착과 성인애착, 그리고 분리-개별화를 채택하였고, 관련 이론 및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 변수 간 인과적 관련성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개별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우선, 부모애착과 분리개별화의 시간적, 논리적 선후관계(부모애착 → 분리개별화)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관계의 방향(정적 또는 부적)에 대해서는 일치되지 않은 주장과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우선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또래에 대한 애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는 상반된 개념이라는 주장(Liable, Carlo, & Raffaelli, 2000; Silverberg & Gondoli, 1996)과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Rice, FitzGerald, Whaley, & Gibs, 1995)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더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애착과 분리-개별화의 정적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신미, 2006; 장휘숙, 2002; 조영주, 최해림, 2001; 조화진, 2005; Mattanah et al., 2004). 특히, Mattanah 등(2004)은 부모애착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리-개별화가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대학생일수록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고, 이는

www.kci.go.kr

결국 대학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가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고 그 안에서 활동할 때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가 안전기지의 역할을 한다는 전통적인 애착이론(Ainsworth et al., 1978; Bowlby, 1988)과 맥을 같이하며,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분리-개별화를 촉진시킨다는 Josselson(1998)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개별화가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부모애착이 분리개별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분리개별화는 대학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디스트레스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세웠다.

분리-개별화와 성인애착 간 경로는 Erikson (1963)의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우선 Erikson(1963)은 강한 자기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친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분리감 또는 자기정체감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위협적으로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경험적인 연구들(Levitz & Orlofsky, 1985; Marcia, 1966; Miri, Ofra, & Inbal, 2004; Orlofsky, Marcia, & Lesser, 1973) 또한 자아정체감을 발전시키고 자율적인 성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경우에만 성숙한 친밀감이 발달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심리적 독립이 안정된 성인애착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미, 2006; 장휘숙, 2002; 조영주, 최해림, 2001).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리-개별화에서 성인애착으로 향하는 인과적 경로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에서 성인애착으로 가는 경로를 모형에 포함시켜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이 안정적일 것으로 가설을 세웠다.

지금까지 살펴본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들은 애착(초기애착, 성인애착)과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 가지 관계변수 간 인과적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부모애착 → 성인애착, 부모애착 → 분리개별화, 분리개별화 → 성인애착. 이를 종합하면, 세 가지 관계변수 간에 부모애착 → 분리개별화 → 성인애착(부모애착 → 성인애착 포함)이라는 인과적 관계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관계변수 간 인과적 관계를 위와 같이 설정하고,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서로 관련된 관계변수들을 동시에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 심리적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응 관련 문제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대학 신입생들을 상담함에 있어서 개입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은 분리-개별화를 매개로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고,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 또한 안정적일 것이다. 둘째, 분리-개별화는 성인애착을 매개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이 안정적일 것이고, 성인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을 것이다. 셋째, 분리-개별화는 성인애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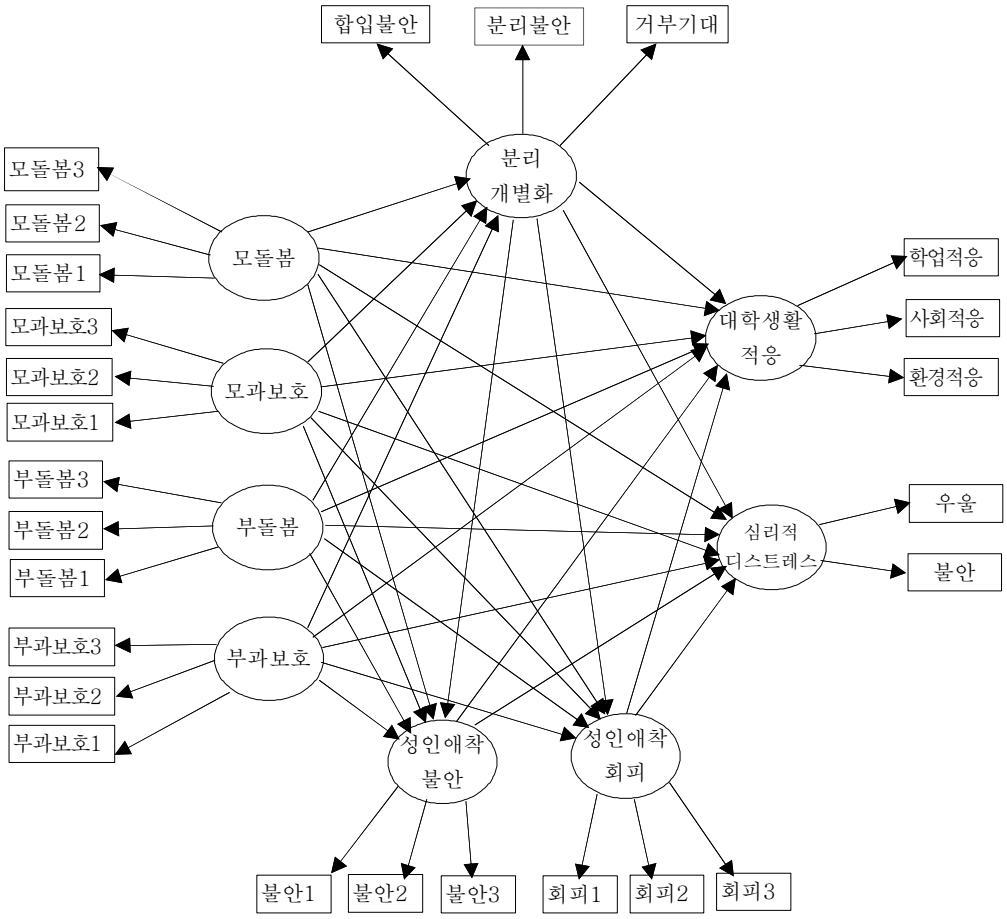

그림 1. 가설모형

착을 매개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이 안정적일 것이고, 성인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은 낮을 것이다. 넷째, 부모애착은 분리-개별화와 성인애착을 매개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고, 성인애착도 안정적이어서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을 것이다. 다섯째, 부모애착은 분리-개별화와 성인애착을 매개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고, 성인애착 또한 안정적이어서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은 낮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성인애착 간 직접 경로를 포함하지 않는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가설모형과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이는 부모애착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성인애착을 가정하는 이론 및 실증적 연구결과(Batholomew & Horowitz, 1991; Cook, 2000; Overbeek et al., 2003)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www.kci.go.kr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4개 대학에서 1학년에 재학 중인 347명(남 135, 여 211, 미기재 1)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18.92(*SD* = 0.94)세이고, 전공은 인문계열 28명(8.1%), 사회계열 31명(8.9%), 공학계열 26명(7.5%), 이학계열 27명(7.8%), 예체능계열 69명(19.9%), 의간호계열 41명(11.8%), 사범계열 61명(17.6%), 기타 61명(17.6%), 미기재 3명(0.9%)이었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63부가 수거되었고, 1학년이 아닌 11명, 불성실하게 응답한 5명을 제외한 347명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은 수업시간에 진행되었고,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25분이었다.

측정도구

부모애착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Parker(1990)의 부모-자녀결합형태 검사(Parenting Bonding Instrument: PBI)를 송지영(1992)이 타당화한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를 사용하였다. PBI는 16세 이전 부모와의 경험을 토대로 부모-자녀의 정서적 유대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부모가 얼마나 기여했다고 인식하는지를 자녀의 관점에서 측정한다. 4점 리커트 척도(1 = *안 그랬다*, 4 = *아주 그랬다*)로 평정하며, 부모 각각에 대해 25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각각에 대해 돌봄과 과보호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데, 돌봄은 무관심과 유기("나에게 쌀쌀하게 대한 편이었다") 또는 부모의 온정과 애정 수준("나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었다")을 12문항으로 평가한다. 과보호는 부모의 개인생활 통제 및 침범("나의 개인 생활을 침범하려 했다") 또는 자율성격려 수준("내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하였다")을 13문항으로 평정한다. PBI는 많은 연구에서 견고한 요인 구조와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고(Lopez & Gover, 1993; Parker, 1990), Overbeek 등(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 과보호와 돌봄이 청년기 우울과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불만족과 부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모돌봄 .82-.85, 부돌봄 .86-.89, 모과보호 .73-.87, 부과보호 .71-.86으로 보고되었고(오욱진, 1998; Overbeek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각각 .86, .89, .84, .85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Overbeek et al., 2003)에서처럼 모돌봄, 모과보호, 부돌봄, 부과보호를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성인애착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Clark, 그리고 Shaver(1998)가 개발한 친밀관계경험척도(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ECR)의 개정판인 Fraley와 Waller (2000)의 ECR-R(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Revised)을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ECR-R은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 즉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회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

www.kci.go.kr

록 안정된 애착패턴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애착불안은 거절에 대한 공포와 유기(abandonment)에 대한 걱정(예,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다.")을 측정하고, 애착회피는 친밀함에 대한 회피와 타인과 가까워지거나 의존함에 있어서의 불편함(예,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을 측정하는데, 응답자들은 주로 애정 관계(romantic relationships)에서 각 문항들이 얼마나 자신의 경험을 잘 설명하는지를 평정한다. 애착불안은 정서적 대처방식 중 감정적 반응(emotional reactivity)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애착회피는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Wei, Vogel, Ku, & Zakalik., 2005), 이 두 가지 차원 모두 우울 및 무망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i, mallinckrodt, Russell, & Abraham., 2004).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현,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독립적인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Fraley와 Waller (2000)의 연구에서는 총 100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불안 .93, 회피 .95로 나타났고, Lopez와 Gormley(2002)의 연구에서는 6개월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불안 .68, 회피 .71로 나타났다. 장석진(2007)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가 애착불안 .94, 애착회피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9와 .90으로 나타났다.

분리-개별화

분리와 개별화 과정에 대한 현재의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Levine, Green, 그리고 Millon (1986)이 개발한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검사지(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f Adolescence: SITA)를 김인경(1994)이 요인분석을 거쳐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ITA는 8개 하위요인 총 10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1 = *매우 그렇다*, 5 = *전혀 안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채점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8개 하위요인 중 함입불안과 분리불안, 그리고 거부기대 등 세 개 하위요인 33문항만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 요인들이 모두 분리과정에서의 불안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Holmbeck & Wandrei, 1993; Mattanah et al., 2004; McClanahan & Holmbeck,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분리-개별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개의 하위요인들이 하나의 잠재변수(분리-개별화)를 구인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하위요인의 총점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함입불안(engulf anxiety)은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로 인해 자신의 독립성과 개별적인 정체성에 위협을 받아 불안해지는 것을 의미하고(예, "가끔 부모님이 나를 너무 과보호하셔서 숨이 막힐 것 같다")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리불안은 부모와 떨어져 스스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상황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며(예, "혼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겁이 난다")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거부기대는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방어적 불안에 관한 것으로(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말했을 때 나를 이해해 줄만한 사람이 없다")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 연구들은 애착과 가족 내 적응, 자아존중감, 그리고 대학적응과 분리-개별화 간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www.kci.go.kr

(Holmbeck & Leake, 1999; Mattanah et. al., 2004). 김인경(1994)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함입불안 .82, 분리불안 .74, 거부기대 .82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1984)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SACQ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등 4가지 하위척도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9점 = *매우 그렇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서적응을 제외한 3개 하위 척도만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개인-정서적응이 또 다른 종속변수인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개념적으로 중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의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학업, 사회적 활동, 학교 만족도 등 세 개의 하위요인이 하나의 잠재변수(대학생활 적응)를 구인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각 하위요인의 총점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학업적응은 학업 수행과 관련된 적응을 묻는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예, "나는 공부를 밀리지 않고 잘 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응은 대학 내 대인관계 및 행사 참여 등과 같은 사회적 활동 관련 적응을 묻는 18문항(예, "나는 대학 활동(동문회, 동아리 등)에 잘 참여하고 있다"), 대학환경적응은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의 정도를 묻는 10문항(예, "나는 이 학교에 다니기로 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SACQ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Graham, Baker, & Wapner, 1984). 현진원(1992)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92, 하위척도 별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73-.83으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응 .85, 사회적응 .86, 대학환경적응 .84로 나타났다.

심리적 디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1983)가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R)를 임규혁(1997)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CL-R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0 = *전혀 없다*, 4 = *아주 심하다*), 총 9개 하위척도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울 13문항, 불안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Birman & Tran, 2008; Lopez & Gormley, 2002)에서처럼 우울과 불안이 하나의 잠재변수(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구인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우울 및 불안의 총점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임규혁(1997)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대부분의 문항들이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냄으로써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임규혁(1997)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우울, 불안이 각각 .86과 .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우울 .90, 불안 .89로 나타났다.

측정변수 생성

부모애착의 모돌봄, 모과보호, 부돌봄, 부과보호와 애착불안, 애착회피 등은 여러 문항들이 한 개의 잠재변수를 구인하고 있기 때문에,

www.kci.go.kr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 그리고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이들 잠재변수들에 대해 각각 세 개의 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잠재변수 별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부하량이 .4 미만이거나 요인 간 부하량의 차이가 .10 미만인 문항들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모애착 3문항, 부애착 3문항, 애착불안 3문항이 제외됨). 그런 후,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에 따라 각 문항별 순위를 매긴 후 가장 큰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작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을 짝으로 묶어 순서대로 세 꾸러미에 연속적으로 할당하였다. 이는 각 꾸러미들이 잠재변수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잠재변수에 대한 꾸러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꾸러미가 해당 잠재변수를 같은 수준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Russell 등(1998)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의 적합도와 매개변수들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7.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때, 자료가 정규분포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뿐만 아니라 RMSEA(.06미만일 경우 모델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SRMR(.08미만일 경우 모델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CFI(.90보다 클 때 모델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TLI(.90보다 클 때 모델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를 함께 살펴보았다. Hu와 Bentler(1999)는 RMSEA, SRMR, CFI가 표본의 비정상성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할 때 함께 살펴볼 것을 제안하였다.

결 과

모형분석을 위한 기술통계

측정변수와 잠재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모돌봄, 부돌봄, 분리-개별화,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정적 상관, 모돌봄, 부돌봄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에는 부적 상관, 모과보호, 부과보호와, 분리-개별화,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부적 상관, 그리고 모과보호, 부과보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에는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측정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 (263) = 752.46, p < .001; CFI = .92; TLI = .90; SRMR = .07; RMSEA = .07(90% 신뢰구간 = .067-.080). 또한 모돌봄 세 꾸러미의 요인부하량은 .84-.92, 모과보호는 .76-.89, 부돌봄은 .88-.90, 부과보호

www.kci.go.kr

표 1.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M	SD	왜도	첨도
1 모돌봄1	-	72	77	88	-35	-38	-34	-38	20	26	23	26	-17	-23	-21	-24	-11	-08	-11	-11	-05	-08	-08	-06	28	12	32	31	13	16	20	19	-13	-12	-13	3.20	54	40	15
2 모돌봄2		-	78	92	-24	-24	-25	-25	37	37	36	40	-19	-22	-19	-24	-01	-04	-10	-06	-07	-06	-09	-08	22	07	45	32	13	23	28	25	-18	-15	-18	3.32	52	-1.22	2.36
3 모돌봄3			-	92	-32	-34	-30	-33	31	30	32	34	-16	-19	-16	-20	-13	-14	-15	-15	-11	-10	-13	-12	30	11	45	37	16	17	28	22	-18	-14	-17	3.11	52	60	94
4 모돌봄합				-	-33	-36	-33	-36	35	36	36	40	-20	-25	-21	-26	-10	-11	-19	-13	-10	-08	-13	-11	30	11	46	37	17	21	26	25	-19	-15	-18	3.42	48		
5 모과보호1					-	65	69	82	-09	-15	-08	-13	30	32	28	32	13	09	08	11	14	09	12	12	-51	-14	-17	-33	-06	-06	-09	-08	03	01	02	2.04	60	40	15
6 모과보호2						-	78	90	-06	-10	-07	-11	31	35	36	39	12	08	10	11	06	06	09	07	-56	-15	-22	-38	-13	-05	-13	-13	09	04	07	2.02	54	27	-22
7 모과보호3							-	92	-14	-15	-12	-16	30	36	37	38	13	09	07	11	12	10	10	11	-58	-19	-23	-41	-13	-14	-18	-18	11	07	10	1.94	57	-94	1.68
8 모과보호합								-	-11	-16	-11	-16	36	40	40	43	13	09	10	12	12	09	11	12	-60	-18	-22	-41	-15	-19	-16	-17	10	06	08	2.38	55		
9 부돌봄1									-	79	80	90	-28	-38	-42	-38	-09	-13	-13	-13	-11	-14	-18	-16	19	05	34	25	15	23	22	24	-20	-16	-19	3.08	61	-54	06
10 부돌봄2										-	80	93	-26	-36	-42	-35	-04	-02	-06	-06	-11	-14	-15	-14	17	-02	24	16	15	19	16	20	-13	-07	-11	2.72	67	-51	-18
11 부돌봄3											-	93	-18	-31	-35	-28	-06	-1	-11	-11	-08	-09	-11	-10	12	04	29	19	15	25	26	26	-12	-10	-11	2.97	68	-25	-31
12 부돌봄합												-	-27	-38	-43	-37	-08	-11	-12	-12	-11	-41	-16	-15	18	03	30	22	17	23	22	25	-15	-11	-14	3.12	59		
13 부과보호1													-	76	66	86	13	11	14	14	11	10	09	11	-44	-07	-26	-31	-10	-11	-14	-14	19	17	19	1.94	62	60	25
14 부과보호2														-	78	92	11	09	10	11	13	10	14	14	-43	-09	-26	-32	-12	-14	-21	-18	19	18	20	1.89	58	84	86
15 부과보호3															-	89	10	11	12	12	09	07	09	09	-38	-14	-26	-33	-11	-14	-19	-17	20	15	19	2.08	60	64	34
16 부과보호합																-	11	11	12	12	14	11	13	14	-46	-12	-31	-36	-13	-16	-23	-20	21	19	21	2.30	58		
17 애착불안1																	-	76	75	91	15	02	23	14	-19	-41	-23	-38	-28	-12	-10	-22	17	25	33	3.91	1.08	-01	40
18 애착불안2																		-	78	92	14	-03	20	11	-14	-43	-25	-38	-25	-15	-10	-21	34	26	32	3.80	1.06	09	-10
19 애착불안3																			-	92	20	04	29	19	-16	-30	-27	-37	-22	-16	-12	-21	32	22	29	3.57	1.10	03	-02
20 애착불안합																				-	18	02	26	16	-18	-45	-27	-41	-26	-16	-12	-23	37	26	34	3.76	99		
21 애착회피1																				-	-	80	78	93	-09	-16	-37	-28	-17	-27	-20	-26	18	19	19	3.02	97	17	-30
22 애착회피2																						-	76	93	-03	-05	-32	-18	-11	-19	-11	-27	07	07	07	3.22	98	16	-03
23 애착회피3																							-	92	-09	-20	-38	-30	-23	-27	-16	-27	19	16	19	3.30	99	10	-35
24 애착회피합																								-	-08	-15	-38	-27	-18	-26	-17	-25	16	15	16	3.18	91		
25 함입불안																									-	23	37	65	17	08	20	18	-29	-23	-28	3.48	84	-63	-13
26 분리불안																										-	48	79	29	34	29	37	-53	-51	-55	3.21	56	-23	16
27 거부기대																											-	83	31	47	47	49	-51	-40	-49	3.97	61	-52	-26
28 분리개별합																												-	35	41	43	47	-60	-52	-59	3.55	49		
29 학업적응																													-	46	41	81	-44	-28	-39	4.85	1.02	31	68
30 사회적응																														-	71	86	-48	-42	-48	5.80	1.18	-16	48
31 정서적응																															-	80	-45	-44	-47	6.53	1.49	-50	-11
32 대학적응합																																-	-56	-45	-53	4.61	80		
33 우울																																	-	80	96	1.30	84	55	-22
34 불안																																		-	93	1.02	84	88	29
35 디스트레스합																																			-	1.18	80		

주 N = 347 상관의 절대값이 .11과 같거나 클 때 p < .05 에서 유의함 ; .14와 같거나 클 때 p < .01 에서 유의함; 모돌봄 1,2,3 = 부모자녀관계평가검사(PBI)의 어머니 돌봄을 세 개 꾸러미로 제작한 것; 모과보호 1,2,3 = 부모자녀관계평가검사(PBI)의 어머니 과보호를 세 개 꾸러미로 제작한 것; 부돌봄 1,2,3 = 부모자녀관계평가검사(PBI)의 아버지 돌봄을 세 개 꾸러미로 제작한 것; 부과보호 1,2,3 = 부모자녀관계평가검사(PBI)의 아버지 과보호를 세 개 꾸러미로 제작한 것; 애착불안 1,2,3 = 친밀관계경험척도(ECR-R)의 성인애착불안을 세 개 꾸러미로 제작한 것; 애착회피 1,2,3 = 친밀관계경험척도(ECR-R)의 성인애착회피를 세 개 꾸러미로 제작한 것; 함입불안, 분리불안, 거부기대 = 분리개별화척도(STA)의 세 하위 요인으로 본 분석에서는 역산을 한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 대학생활적응척도(SACQ)의 세 하위 요인임; 우울, 불안 = 한국판간이정신진단검사 중 우울, 불안 요인임

www.kci.go.kr

는 .80-.94로 나타났고, 분리-개별화는 .53-.72, 성인애착불안은 .86-.88, 성인애착회피는 .87-.91, 대학생활적응은 .54-.86,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80-1.00으로 모두 $p < .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26개의 측정변수로 9개의 잠재변수를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검증

부모애착(모돌봄, 모과보호, 부돌봄, 부과보호)에서 성인애착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포함

표 2.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CFI	TLI	SRMR	RMSEA(90%신뢰구간)
가설모형	755.05	266	.92	.86	.07	.07(.067-.079)
경쟁모형	768.16	274	.92	.90	.07	.07(.066-.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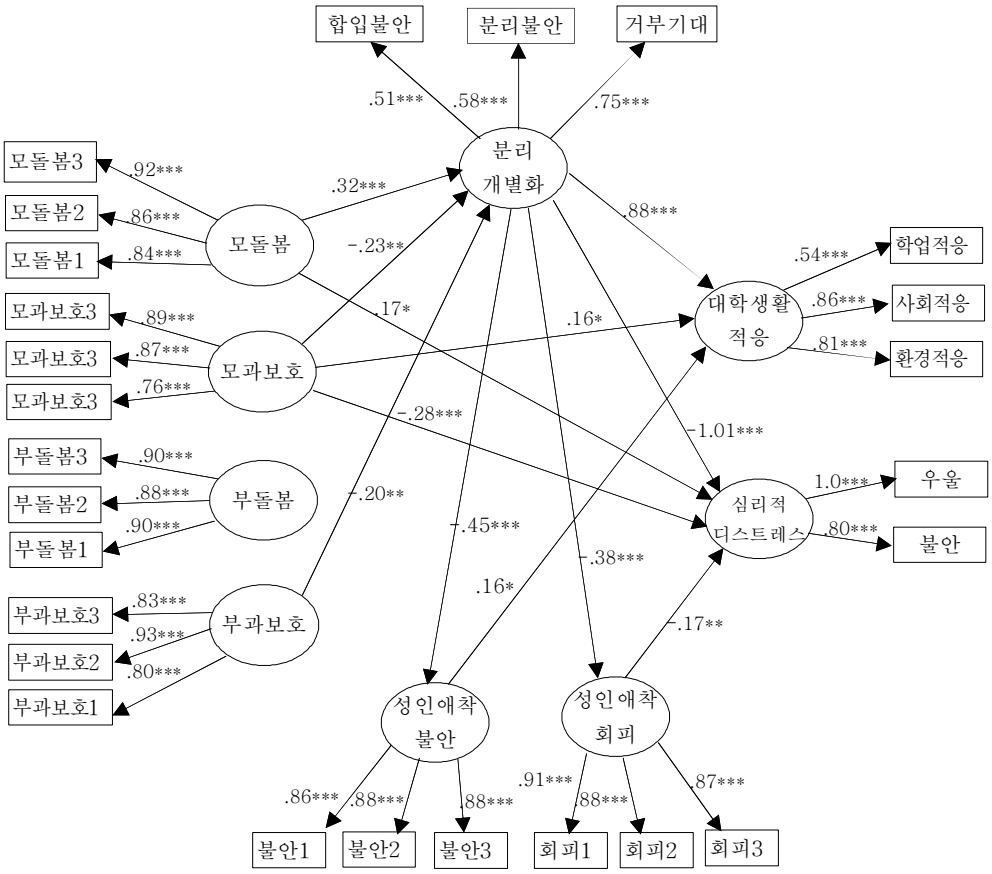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모형 ($N = 347$). * $p < .05$. ** $p < .01$. *** $p < .001$.
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들은 생략하였음.

www.kci.go.kr

하고 부모 애착이 대학생활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리-개별화와 성인애착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가설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 (266) = 755.05, p < .001; CFI = .92; TLI = .86; SRMR = .07; RMSEA = .07(90% 신뢰구간 = .067-.079). 그러나 부모애착에서 성인애착으로 가는 모든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s > .05). 한편, 부모애착에서 성인애착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설정하지 않은 경쟁 모형 역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 (274) = 768.16, p < .001; CFI = .92; TLI = .90; SRMR = .07; RMSEA = .07(90% 신뢰구간 = .066-.078)(표 2 참조). χ^2 차이검증을 통해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두 모형은 적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riangle\chi^2$ (8) = 13.11, p > .05. 따라서 부모애착에서 성인애착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다는 점과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이 적합도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더 간명한 구조를 지닌 경쟁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그림 2).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애착 중 모돌봄은 분리-개별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과보호, 부과보호는 분리개별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리-개별화는 성인애착불안과 성인애착회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과보호, 분리-개별화, 성인애착불안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돌봄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모과보호, 분리-개별화, 성인애착회피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Mackinnon, Krull, 그리고 Lockwood(2000)는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기존의 14가지 방법을 1종 오류와 통계적 검증력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이 가장 약한 통계적 검증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Sobel(1982)의 절차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Sobel 절차를 따를 경우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함에 있어서 표준오차의 문제가 있음을 동시에 제기하였는데, 이에 Shrout와 Bolger(2002)는 표준오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트스트랩 절차를 제안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통계적 추정치의 유의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험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절차인데, 본 연구에서는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 = 347)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즉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α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른 간접효과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부모애착에서 분리-개별화를 거쳐 성인애착으로 가는 경로에 해당되는 계수들의 신뢰구간을 확인한 결과, 부돌봄을 제외한 나머지 부모애착 변수들(모돌봄, 모과보호, 부과보호)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부모애착은 분리-개별화를 매개로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분리-개별화에서 성인애착 변수들(애착불안, 애착회피)을 통해 대학생활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가는 경로를 확인한 결과, 간접효과 경로계수들의 신뢰

www.kci.go.kr

표 3. 분리개별화와 성인애착의 직, 간접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95% 신뢰구간)	총 효과
모돌봄 → 분리개별화	.32***		.32*
모과보호 → 분리개별화	-.23**		-.23**
부돌봄 → 분리개별화	.08		.08
부과보호 → 분리개별화	-.20**		-.20**
분리개별화 → 성인애착불안	-.45**		-.45**
분리개별화 → 성인애착회피	-.38**		-.38*
모돌봄 → 성인애착불안		-.14**(-.24, -.07)	-.14**
모돌봄 → 성인애착회피		-.12**(-.21, -.05)	-.12**
모과보호 → 성인애착불안		.10*(.03, .20)	.10*
모과보호 → 성인애착회피		.09*(.03, .16)	.09*
부돌봄 → 성인애착불안		-.04(-.13, .03)	-.04
부돌봄 → 성인애착회피		-.03(-.10, .03)	-.03
부과보호 → 성인애착불안		.09**(.02, .17)	.08**
부과보호 → 성인애착회피		.08**(.02, .15)	.08**
성인애착불안 → 대학생활적응	.16*		.16*
성인애착회피 → 대학생활적응	-.01		-.01
성인애착불안 → 심리적 디스트레스	.03		.03
성인애착회피 → 심리적 디스트레스	-.17**		-.17**
분리개별화 → 대학생활적응	.88**	-.07(-.18, .02)	.81**
분리개별화 → 심리적 디스트레스	-1.01**	.05(-.03, .14)	-.97**
모돌봄 → 대학생활적응	-.09	.26**(.11, .42)	.17*
모돌봄 → 심리적 디스트레스	.17*	-.31**(-.47, -.13)	-.14*
모과보호 → 대학생활적응	.16*	-.19*(-.41, -.04)	-.03
모과보호 → 심리적 디스트레스	-.28**	.22*(.04, .50)	-.06
부돌봄 → 대학생활적응	.13	.07(-.07, .20)	.19
부돌봄 → 심리적 디스트레스	.04	-.08(-.25, .09)	-.04
부과보호 → 대학생활적응	.09	-.16**(-.33, -.03)	-.08
부과보호 → 심리적 디스트레스	-.01	.20**(.04, .39)	.19**

주. N = 347. * p < .05. ** p < .01. *** p < .001.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수치임

www.kci.go.kr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분리-개별화는 성인애착을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3(“분리-개별화는 성인애착을 매개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애착 변수들에서 분리-개별화와 성인애착 변수들을 거쳐 대학생활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가는 경로들을 살펴본 결과, 부돌봄에서 대학생활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로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부모애착은 분리-개별화와 성인애착을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5(“부모애착은 분리-개별화와 성인애착을 매개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돌봄은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모돌봄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개별화와 성인애착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모돌봄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개별화와 성인애착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과보호의 경우 대학생활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모두에 대해 분리-개별화와 성인애착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고, 부과보호는 대학생활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모두에 대해 분리-개별화와 성인애착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억제효과 검증

흥미로운 점은, 분리-개별화와 성인애착을 모두 포함한 간접효과 검증 시 부모애착 변수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대한 경로계수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듯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정반대의 부호를 지닐 경우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1]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Tzelgov & Henik,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 우선, 변수간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개모형 검증 시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관계의 방향이 정반대로 나타날 때 억제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Cohen, Cohen, Aiken, & West, 2002). 이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 시 확인된 독립변수(모돌봄, 모과보호, 부과보호)와 종속변수(대학생활 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간 상관계수와 매개모형 검증 시 확인된 직접경로계수들을 비교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상관계수와 직접경로계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모돌봄, $r = .28(p < .001)$, $\beta = -.09(p > .05)$; 모과보호, $r = -.17(p < .01)$, $\beta = .16(p < .05)$; 부과보호, $r = -.22(p < .001)$, $\beta = .09(p > .05)$. 또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상관계수와 직접경로계수는 다음과 같다: 모돌봄, $r = -.20(p < .001)$, $\beta = .17(p < .05)$; 모과보호, $r = .10(p > .05)$, $\beta = -.28(p < .01)$; 부과보호, $r = .23(p < .001)$, $\beta = -.01(p > .05)$. 즉, 모든 관계에서 상관의 방향이 정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애착이 대학생

1) 억제효과 : 특정 변수가 회귀 방정식에 투입됨으로써 또 다른 변수 혹은 변수들(set of variables)의 예측 타당도(predictive validity)가 증가되는 경우, 그 특정 변수를 억제변수(suppressor variable)라 부른다(Conger, 1974). 즉, 제 3의 변수(억제변수)를 투입했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의 크기가 더 커진다면, 이는 억제효과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Mackinnon et al., 2000).

www.kci.go.kr

표 4. 분리개별화의 억제효과 검증

	모돌봄 → 대학생활적응	모돌봄 → 심리적 디스트레스	모과보호 → 대학생활적응	모과보호 → 심리적 디스트레스	부과보호 → 대학생활적응	부과보호 → 심리적 디스트레스
분리개별화 투입 전	.28***	-.19***	-.17**	.10	-.21***	.22***
분리개별화 투입 후	-.03	.52***	.22**	-.60***	.03	-.11

주. ** $p < .01$. *** $p < .001$.

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리-개별화 또는 성인애착이 억제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앞서 확인한 것처럼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애착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성인애착이 억제효과를 지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어 분리-개별화의 억제효과만을 검증하기로 결정하였다. 분리-개별화의 억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acKinnon 등(2000)이 제안한 절차를 따랐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를 설정하면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일부분 또는 전부를 설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의 크기는 줄어든다. 그러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제 3의 변수를 투입했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절대 상관이 오히려 커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억제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MacKinnon et al., 2000). 따라서 분리-개별화의 억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리-개별화를 매개변수로 투입하기 전과 후에 부모애착 변수들의 직접효과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모돌봄 → 심리적 디스트레스, 모과보호 → 대학생활적응, 모과보호 → 심리적 디스트레스 경로에서는 분리-개별화를 투입한 이후에 직접효과의 크기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 분리-개별화의 억제효과를 시사하였다. 한편, 나머지 경로들(모돌봄 → 대학생활적응, 부과보호 → 대학생활적응, 부과보호 → 심리적 디스트레스)에서는 유의했던 직접효과가 분리-개별화 투입 이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것은 해당 부모애착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개별화가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동일한 경로에서 분리-개별화와 성인애착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었는데,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애착이 매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세 경로에서의 완전매개효과는 성인애착이 아닌 분리개별화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디

www.kci.go.kr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수로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을 설정하고, 부모애착이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리-개별화와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비교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은 성인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 분리-개별화를 통해 간접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가 자녀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발달하는 것을 촉진하고, 분리-개별화된 존재로서 분명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할수록 대학신입생 시기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태도 및 능력이 신장됨을 의미한다. 비록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분리-개별화를 통해 안정된 성인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가 안정된 성인애착의 전제조건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한 자기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친밀감이 형성된다는 Erikson(1963)의 주장과 일치하며, 자율적인 정체감 형성이 대학신입생들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연구결과 부모애착에서 성인애착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제외한 매개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 초기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애착패턴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전통적인 애착이론(Ainsworth et al., 1978; Bowlby, 1988)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며, 또한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직접적인 인과적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예, 신미, 2006; 장휘숙, 2002; 조영주, 최해림, 2001; Miri et al., 2004)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본 연구결과는 부모애착과 구분되는 성인애착의 존재 및 그 역할을 강조하는 최근 이론 및 경험적 연구결과(Brennan et al., 1998; Cook, 2000; Overbeek et al., 2003)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분리-개별화는 성인애착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는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은 신입생일수록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 간 정적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정은희, 1992; 한혜준, 1994; Hoffman, 1984; Lapsley, et al., 1989; Levitz & Orlofsky, 198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신입생들의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경우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등에서 더 많은 문제를 호소한다는 선행연구(Wei, Vogel, Ku, & Zakalik, 2005)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렇듯 선행연구와 불일치하는 이유가 통계적 허구(statistical artifact)로 인한 결과인지, 종속변인이 달라서인지, 또는 연구대상을 포함한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대학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Wei et al., 2005)와는 달리 대학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 다만, 최근 수행된 애착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연구 결과,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승인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ver & Mikulincer, 2002; Wei, Russell,

www.kci.go.kr

Mallinckrodt, & Vogel, 2007). 이는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승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관계형성 및 유지와 관련된 대인기술을 독특한 방식으로 발달시키고, 이를 통해 대인관계와 관련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애착불안이 높은 대학신입생들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지각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것처럼, 대학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Wei, Vogel, Ku, & Zakalik, 2005)에서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등에서 더 많은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대학 고학년을 포함한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가 재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리-개별화는 성인애착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연구 가설 또한 기각되었다. 즉,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변수 간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박규상, 2008; 장휘숙, 2002; Holmbeck & Wandrei, 199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신입생들의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된 성인애착 패턴을 보일수록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김광은, 2004; 이경님, 2003; Wei, et al., 2006; Wei, et al., 2005)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단순한 통계적 허구인지, 아니면 대학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 다만, 애착 관련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피드백에 무관심하고(Brennan & Bosson, 1998),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의 가치를 부인하며(Griffin & Bartholomew, 1994),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압하고 위협적인 자극을 인지적으로 막는 등의 대처방식을 사용한다(Mikulincer & Florian, 1998).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본 연구에서처럼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경험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적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애착회피 성향이 지속될 경우 더 많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주장(Young, Klosko, & Weishaar, 2003)과 연구결과(Wei et al., 2005)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인애착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고학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가 재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결과 부모애착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개별화가 완전매개 또는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네 번째 연구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부모애착과 분리-개별화의 부가적(additive) 효과를 밝힌 연구(장휘숙, 2002; 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Schultheiss & Blustein, 1994)와 분리-개별화의 부분매개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조화진, 2005)와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분리-개별화가 부모애착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한 Mattanah 등(2004)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렇듯 부모애착의 영향을 분리-개별화가 완전매개한다는 것은, 대학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서 분리-개별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모과보호에서 대학생활적응으로의 경로에서 분

www.kci.go.kr

리-개별화의 억제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측면이다. 어느 변수(C)가 억제효과가 있다는 것은 A가 B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억제변수를 통계적으로 통제했을 때는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통제를 가하지 않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A가 B에 미치는 영향을 C가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본 연구결과에 적용하면, 평소에는 어머니 과보호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개별화가 억제하기 때문에, 어머니 과보호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개별화가 축소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부모애착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개별화가 완전매개 또는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섯 번째 연구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부과보호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에서는 분리-개별화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고, 모돌봄 및 모과보호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에서는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 적응과 마찬가지로 대학신입생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분리-개별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분리-개별화의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들(박규상, 2008; 장휘숙, 2002; Holmbeck & Wandrei, 199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분리-개별화의 억제효과가 나타난 경로들이 모두 어머니와의 애착(모돌봄, 모과보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신입생의 발달시기 및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주요 발달시기를 통틀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했을 때, 대학신입생들에게도 여전히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형성된 인지/정서적 태도가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는 달리 좀 더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대학신입생들에게는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를 이루는 문제가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당면 과제일 수 있다. 즉, 과거에 형성된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는 배경(background)이 되고, 분리-개별화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는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하는 전경(foreground)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분리-개별화가 억제효과를 지녔다는 것은 적절한 수준의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 디스트레스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분리-개별화의 억제효과는 완전매개효과와 함께, 대학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분리-개별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실제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활 적응 문제 또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대학신입생들이 어느 정도로 개별화되고 독립된 존재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분리-개별화를 성취하는 것이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건강에 중요함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분리-

www.kci.go.kr

개별화 수준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부정적 정서 등을 탐색하고 극복하는 일을 도와야 할 것이다. 즉, 내담자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갈등의 내용 및 영역들을 확인하고, 기존에 사용한 갈등해결 전략의 유효성을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 대안적인 전략을 고안해서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 분리되고 개별화된 자아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이나 관계 유실에 대한 불안은 없는지 확인하고, 부정적 정서의 영향을 고려하여 부정적 감정과 결부되어 있는 인지적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 때 필요하다면, 상담과정에 내담자의 부모를 포함시켜 분리-개별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와 어머니의 자율성 존중, 그리고 아버지의 자율성 존중은 대학신입생의 건강한 분리-개별화 성취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모돌봄과 모과보호는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과정에 부모를 참여시켜 내담자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기능하여 결국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고통을 덜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율성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 및 관계패턴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 애착대상이 다양해지고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애착 양식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경험한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경험이나 부모-자녀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모 이외의 이성친구, 동성친구, 중요한 타인 등 현재 경험하고 있는 애착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 즉 유기나 버림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와 친밀한 관계형성에 대한 동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듯 내담자의 애착관계 형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및 태도를 탐색하는 일은,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패턴화된 태도 및 행동양식을 확인하고 실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때, 상담자-내담자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내담자가 보고하는 과거 및 현재 주요 타인과의 관계경험 및 그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을 토대로 내담자의 애착패턴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내담자의 관계 행동을 통해 관계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내담자가 왜곡되고 불안정한 애착패턴을 지니고 있다면, 신뢰와 수용을 바탕으로 한 상담관계를 통해 내담자에게 교정적 정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존적이거나 공생적인 관계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기능할 수 있는 경험들을 내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도 정서적 유대와 분리-개별화를 균형있게 성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새로운 대인관계 기술 및 대인행동을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서울

www.kci.go.kr

과 경기도에 소재한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 또한,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한 신입생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모든 학년의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적 관계모형이 적합한지, 특히 세 관계변수 간 인과적 관련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본 연구에서처럼 분리-개별화의 매개효과와 억제효과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함께 변수로 채택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서론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주요 타인과 분리 또는 이별을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애착 유형 및 패턴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대학신입생의 분리-개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학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신입생들과 계속해서 부모와 동거하는 대학생들을 구분하여 구조적 관계모형의 적합도 및 개별 경로계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만일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 및 변수들의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면, 동거여부에 따른 차별적인 상담개입 절차들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세 가지 관계변수를 채택하여 인과적 관련성 및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변수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인지/정서/행동 변수들(예,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서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타인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함께 모형에 포함시켜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수들 간의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초점을 두고 개입해야 할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김은영 (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경 (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0(2), 215-237.

김인경 (1994).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연구 -가족관계, 분리개별화 및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성현 (2004). 친밀관계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www.kci.go.kr

박규상 (2008). 자기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개별화 수준 및 대인관계성향의 차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범혁, 정영숙 (2007).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45-57.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5), 979-991.

신 미 (2006). 부와 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 및 여대생의 성인애착.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양혜선 (2004). 애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욱진 (1998).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관계지향성 및 성취지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경님 (2003).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1), 1-13.

이기학, 이경아, 이정화 (2008). 2008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세상담연구, 24.

임규혁 (1997).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심리측정학적 재조명: 확인적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1(1), 157-189.

장석진 (2007). 애착이론에 근거한 대인관계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연주 (2008).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정은희 (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영주, 최해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조화진 (2005). 부모와의 애착 및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은실 (2001). 애착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혜준 (1994). 분리-개별화와 가족 응집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87-194.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63-472.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cademic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Baldwin, M. W., Keelan, J. P. R., Fehr, B., Enns, V., & Koh-Rangarajoo, E. (1996). Social-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working model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94-109.

Baron, M. R.,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www.kci.go.kr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a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Birman, D. & Tran, N. (2008). Psychological distress and adjustment of Vietnamese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Association With Pre- and Postmigration Facto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8*(1), 109-120.

Blustein, D., Walbridge, M., Friedlander, M., & Palladino, D.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Brennan, K. A., & Bosson, J. K. (1998). Attachment style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and reactions to feedback from romantic partners: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al bases of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699-714.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Bryde, J. F., Milburn, C. M. (1990). Helping to make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In R. L. Emans (Ed.), *Understanding undergraduate education* (pp.203-213). Vermillion, SD: University of South Dakota Press.

Cassidy, J. (2001). Truth, Lies and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3*, 121-155.

Chemers, M., Hu, L., & Garcia, B. (2001).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Yea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1), 55-64.

Cohen, J., Cohen, P., Aiken, L. S., & West, S. G. (2002).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Conger, A. J. (1974). A revised definition for suppressor variables: A guide to their identification and interpretation. *Educational Psychological Measurement, 34*, 35-46.

Cook, W. L. (2000). Understanding attachment security in family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285-294.

Derogatis, L. R. (1983). *SCL-90-R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Ⅱ*. Twoson, MD: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Fraley, R. C., & Waller, N. G. (2000).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Graham, C., Baker, R., & Wapner, S. (1984). Prior interracial experience and Black student transition into predominantly White colle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46-1154.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4).

www.kci.go.kr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430-445.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Holmbeck, G. N., & Leake, C. (1999). Separation -individu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563-581.

Holmbeck, G. N., & Wandrei, M. L. (1993). Individual and relational predictors of adjustment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73-78.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Josselson, R, (1988). *The embed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D. K. Lapsley & S. M. Quintana (Eds.), Sel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pp.91-108). New York: Springer.

Lapsley, D., Rice, K. G., & Shadid, G. E. (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86-294.

Larose, S., & Boivin, M. (1998).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support expectation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during the high school college transi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 1-27.

Levine, J. B., Green, C. J., & Millon, T. (1986).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f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0*(1), 123-137.

Levitz-Jones, E. M., & Orlofsky, J. L. (1985). Separation-Individuation and Intimacy Capacity in Colleg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1), 156-169.

Lewis, M., Feiring, C., Rosenthal, S. (2000). Attachment over time. *Child Development, 71*, 707-720.

Lia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45-59.

Loeb, R., & Magee, P. (1992). Changes in attitudes and self-perceptions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colleg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348-355.

Lopez, F. G., & Gormley, B. (2002). Stability and Change in Adult Attachment Style Over the First-Year College Transition: Relations to Self-Confidence, Coping, and Distress Patter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3), 355-364.

Lopez, F. G., & Gover, M. R. (1993). Self-report measures of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separation-individuation: A select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 560-569.

MacKinnon, D. P., Krull, J. L.,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4), 173-181.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Mattanah, Jonathan F., Hancock, Gregory R., & Brand, Bethany L. (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www.kci.go.kr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al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13-225.

Mayseless, O., Danieli, R., Sharabany, R. (1996). Adults' attachment patterns: Coping with separ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667-690.

McClanahan, G., & Holmbeck, G. N. (1992). Separation-individuation, family function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A construct validity study of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f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9*(3), 468-485.

Mikulincer, M. & Florian, V.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emotional and cognitive reactions to stressful events.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143-165). New York: Guilford Press.

Miri Scharf, Ofra Mayselsee, & Inbal Kivenson -Baron (2004). Adolescents'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Developmental Tasks in Emergi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0*(3), 430-444.

Orlofsky, J. L., Marcia, J. E., & Lesser, I. (1973). Ego identity status and the intimacy versus isolation crisis of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211-219.

Overbeek, G., Vollebergh, W., Engels, R. C. M. E., & Meeus, W. (2003). Parental Attachment and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Emotional Disturbance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28-39.

Parker, G. (1990).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A decade of research.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5*, 281-282.

Rice, K. G., Cunningham, T. F., & Young, M. B. (1997).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well-being: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89-101.

Rice, K. G., FitzGerald, D. P., Whaley, T. J., & Gibs, C. L. (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463-474.

Rice, K. G., Lopez, F. G., & Vergara, D. (2005). Parental/Social influences on Perfectionism and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4), 580-605.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S.,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Schultheiss, D., & Blustein, D. (1994). Role of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in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2), 248-255.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 133-161.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www.kci.go.kr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Silverberg, S. B., Gondoli, D. M. (1996). *Autonomy in Adolescence: A Contextualized Perspective. In Psycholsocial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Progress in developmental contextualism. Adams, G., & Gullotta, T. (Eds.)*, Thousand Oaks, CA: Sage, 12-61.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Sullivan, K., & Sullivan, A. (1980). Adolescent -parent sepa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93-99.

Tzelgov, J., & Henik, A. (1991). Suppression situations in psychological research: Definition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9*, 524-536.

Wei, M., Heppner, P. P., Russell, D. W., Young, S. K. (2006).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Ineffective Coping as Mediators Between Attachment and Future Depression: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67-79.

Wei, M., Mallinckrodt, B., Russell, D. W., & Abraham, T. W. (2004).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 mediator and moderator between attachment and negative moo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201-212.

Wei, M., Russell, D. W., Mallinckrodt, B. & Vogel, D. L. (2007).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ECR)-short form: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8*(2), 187-204.

Wei, M., Russell, D. W.,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ocial Self-Efficacy, Self-Disclosure, Loneliness, and Subsequent Depression for Freshman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602-614.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4-24.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ick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Newbury Park, CA: Sage.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권석만 외 역 (2005). 심리도식치료. 서울: 학지사.

원 고 접 수 일 : 2010. 02. 05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3. 29
게 재 결 정 일 : 2010. 05. 15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0, Vol. 22, No. 2, 385-411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dult Attachment, College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ollege Freshmen

Hwa Jin Cho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data from 347 college freshmen, this study examined 2 mediators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ult attachment) regarding the links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ollege adjustment or psychological distress. Results indicated that a model with no direct paths from parental attachment to adult attachment produced a better fit to the data than the hypothesized fully saturated structural model. Results also revealed that the link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adult attachment was fully mediated through separation-individuation. However, adult attachment did not mediate the link between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adjustment or psychological distress. In addition, the links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ollege adjustment or psychological distress were fully mediated or suppressed by separation-individuation. Finally, attachment anxiety was positively related to college adjustment, whereas attachment avoidance was negatively related to psychological distress.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future research and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Keywords :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dult attachment, college adjustment, psychological distress

www.kci.go.kr